

한전, 동해안~신가평 송전선로 본격 추진 최적경과지 선정

주민 협의·환경영향평가·사업실시계획 요청 등 절차 진행



1, 4 한전 강원본부, 특고압 배전 간접활선 공법 시연 2 한전 동해안~신가평 특별대책본부 기자회견담회 3 동해안~신가평 송전선로 서부 구간 23차 입지선정위

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동해안~신가평 500kV 직류 장거리 송전망(HVDC) 건설사업 서부 구간에서 최적 경과지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.

한전 동해안~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2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기자회견담회를 열어 앞으로 경과지 인접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협의, 지자체·관계 기관에 관련법 저촉 여부 등 조



4

계획 승인 요청 등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최규택 특별대책본부장은 “지역 간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업 특성상 경과지 결정에 따른 부담은 한전에서 지는 게 당연하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경과지 인근 지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협의를 통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, 친환경 공법 시공을 통해 환경피해와 경관 저해도 최소화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한전은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동해안~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.

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, 선로 길이는 동부 140km, 서부 90km 등 총 230km에 달한다.

건설하는 철탑 수는 총 440기로 선로는 경북·경기·강원도 10개 시·군을 지나게 된다.

동부 구간은 2019년 4월 최적 경과지 선정 후 총 43개 마을 중 33개 마을과 합의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.

서부 구간은 2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2월 14일 최적 경과지를 의결했다. ▼



- 선진국에서 기술안정성이 검증된 **직류송전방식**으로 건설되어 인체에 유해한 **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아** 지역주민들의 **건강에 대해 안심**할 수 있습니다.
- 환경영향을 최소화** 하면서 안전하고 **환경 친화적 공법**으로 건설됩니다.
- 송전선로 경과지(위치)선정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**공정하고 투명**하게 시행하겠습니다.
- 최근 증가하고 있는 **신재생발전단지 연계**를 위해서도 송전선로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